

27일부터 전주역 일부 시설 임시 개방

후면주차장·선상연결통로·증축역사 우측 구간 임시 사용 개시 예정

전주역사 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후면주차장과 선상연결통로, 증축역사 우측 구간이 임시 개방된다. 전주시는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함께 추진 중인 전주역사 개선사업이 현재 약 68%의 공정률을 기록 중인 가운데, 시민과 철도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시설을 우선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 사용 개시로 전주역 이용객들은 새롭게 조성된 후면주차장과 선상연결통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증축역사 우측 구간도 함께 개방돼 보다 쾌적한 역사 이용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단, 단계별 공정에 따라 기존 운영해 온 전주역 전면 임시주차장은 오는 27일부터 운영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전주역 이용객은 전주역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후면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후면주차장은 기존 전면 임시주차장 151면보다 231면이 증가한 총 382면 규모로 조성돼 전주역 이용객과 방문객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 공사 준공 완료 시점에 전면주차장 220면이 추가로 조성되면 주차면은 총602면 규모로 확대돼 향후

증가하는 주차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전에 승차권을 예매한 경우에는 후면주차장에 주차한 후 역사를 거치지 않고 선상연결통로를 통해 열차를 탑승하는 승강장(플랫폼)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시는 주차장 위치 변경과 이동 동선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주역 인근 동부대로와 백제대로 등 주요 도로에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누리집과 SNS, 시내버스 정류장 BT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백미영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7월

27일부터 후면주차장과 선상연결통로, 증축역사 우측 구간이 개방되면서 전주역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역사 개선사업은 2011년 KTX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철도 이용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 증축(지하 1층~지상 3층), 주차시설 및 광장 교통체계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증축역사 좌측 구간과 기존 역사 리모델링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의회 제4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이남숙 의원, 전주시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전반 개선 요구
양영환 의원, 예견된 주거 재난 관련 전주시 행정 결단 촉구

1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 1·2동)은 전주시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전반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업용수관 파손 사고로 시민에게 약 1억원의 보상 책임이 발생했다”며 “공업용수관 등 지

하매설물은 시민과 기업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한번의 굴착 실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및 매설물 표시체계 전면 점검 △지하매설물 사고에 대한 표준 대응체계 및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인자부담금 산정과 복구공법 결정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제안했다.



이남숙 의원



양영환 의원

다.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 1·2동)은 민간임대주택의 의무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분양 전환 갈등과

관련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결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행법률상 의무임대 기간 이후 분양과 매각 방식 등이 사업자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맡겨지는 구조”라며 “실제 평화동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방적인 분양 전환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지난 5월 분쟁을 일으킨 해당 기업의 계열사에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승인해 준 것은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평화동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력 집중과 신규 임대아파트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자봉센터, ‘온정 한 시간’ 캠페인 시민 참여 확대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정신건강 으뜸도시 조성 과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연중 추진 중인 ‘온정 한 시간’ 캠페인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 참여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정 한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1시간이라도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장려하는 캠페인이다. 환경보호와 이웃 돌봄, 나눔 실천 등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를 통해 생활 속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된다. 센터는 온정 한 시간 캠페인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5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여름휴가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름휴가 중 실천하고 싶은 봉사 활동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음료 쿠폰을 증정하는 방식이다. 센터는 이어 오는 9월에는 생활 속 자원봉사 활동 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경력보유여성 대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열려

전주지역 경력보유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행사가 열렸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양희옥)는 15일 센터 4층 만돌레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진·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취업 연계와 사회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구인·구직 매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는 여성 직업 교육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생을 비롯한 여성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채용 면접부스가 운영됐다. 특히 ‘직업 도전관’에서는 전주지역 1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돌봄·요양·간호·사무·조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채용 면접이

진행됐으며, 100여 명의 구직자들은 1:1 현장 채용면접에 참여했다. 또한 ‘전문가 멘토칭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및 코칭을 통해 △창업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이 진행됐다. 또, ‘진로 체험관’에서는 △지문적성검사 △취업타로카드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양희옥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만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여성들의 취업 성공과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남부시장서 만나는 특별한 책방

전주책과 연계 시장체험 문화프로그램 ‘백년의 서포’ 운영

전주남부시장 백년시장 특성화사업단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7일간 전주 남부시장에서 전주책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젝트인 ‘백년의 서포(書鋪)’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남부시장 내 문화공관장 작당과 로컬공관장 모이장에서 펼쳐지는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과’와 연계해 전통시장과 독립출판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로, 시장 곳곳을 하나의 책방이자 문화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서포’ △자유로운 독서와 나만의 진(Zine) 제작 워크숍이 진행되는 ‘책페의 사랑방’ △남부시장의 역사와 기록을 담은 ‘백년의 서포 아카이빙 전시관’으로 구성되며, 주 단에서는 독립출판 창작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소규모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는 독립출판문화가 가진 개성과 전통시장의 오랜 역사성을 결합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오송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들은 15일 전주시복지재단에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45만 원을 전달했다.

전주오송초 4학년 3반, 따뜻한 나눔 실천

오송 직업인 박람회서 직접 제작한 굿즈 판매 수익금 45만원 기탁

전주오송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들이 진로교육 활동을 통해 직접 제작한 굿즈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오송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들은 15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45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학생들이 진로 교육 과정에서 지역 직업인을 조사하

고, AI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굿즈를 오송 직업인 박람회에서 판매한 수익금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아 마련됐다. 이번 활동은 진로교육과 AI 활용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한 프로젝트로, 창의적인 배움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으로 이어진 뜻깊은 교육활동이 됐다. /이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